

2007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기자간담회

● 일시 : 2007년 8월 16일(목) ● 장소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세미나실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김영화 원장의 정책설명 장면

환경기술 개발 진흥 '침병'

Ⅲ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매년 환경신기술 발표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전시 발표회가 많은데 여타 전시 발표회와 차이점은 무엇이며, 연간 예산 및 연평균 수익은 얼마인지?

우리원에서 주최하는 환경신기술 발표회는 “환경신기술 인증 기술”을 위주로 행사를 주최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유사 전시·발표회와 극명하게 구분되는 점입니다.

동 행사는 환경신기술 인증 기술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지원의 장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발표회에 배정된 예산은 30,000천원입니다.

Ⅳ 환경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넓히기 위한 방안은 어

떠한 것들이 마련돼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1998년 제도도입 이후 2006년 12월까지 총 203건의 기술이 인증되었으며, 인증된 기술 중 66.5%인 135건의 기술이 2,995개 현장(공사금액 : 17,513억원)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환경신기술의 현장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시설공사 및 설계용역시 신기술 가점을 부여(환경부고시 제2006-170호, 2006.10.27)하는 등 신기술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환경기술평가 제도 개선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연구 용역(2008.8~2009.2)을 통해 인증 또는 검증 기술의 현장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예비사업단장 명단으로 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₂ 온실가스 사업단은 구자공(한국환경자원공사) 전문위원, 신대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동종인(서울시립대학교) 교수입니다.

수생태 복원 사업단은 안규홍(KIST)책임연구원, 전용호(강원대학교)연구 교수입니다.

한편 향후추진 업무는 사전기획서 접수는 오는 9월 3일(예정), 사업단장 선정평가는 9월 4일부터 9월 7일, 사업단장 협약체결은 9월 11일, 부처 협의후 사업 착수는 9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Ⅲ 환경벤처센터의 현황과 그동안 환경벤처센터를 운영하면서 나온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환경벤처센터는 환경부가 유망한 환경기술 보유기업을 성공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12월에 개소했습니다. 환경벤처 센터의 전신인 환경신기술창업 보육센터로 시작해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을 거쳐 2006년 5월에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 지난 해 9월 '환경벤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 환경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센터의 발전방향을 재정립해 역외 기업(입주기업외의 환경산업 업체) 지원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관 후 환경벤처센터에서는 입주·졸업기업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외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는 한편 다각적으로 입주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9개 입주기업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 다.

현재 전체 입주실에 공실없이 16개 업체를 보육하고 있으며, 2007년 8월 기준으로 22개 업체가 졸업하였습니다. 졸업기업 중 (주)이엔쓰리는 작년에 코스닥 상장을 하였으며, (주)에코필은 핵심사업인 유류분해미생물제제가 정부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 2월에는 토양정화분야 최초 환경신기술 인증도 받았습니다. 또한 2006년도 기준으로 11개 졸업기업이 243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환경기술 수출지원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지원팀을 지난 7월에 신설하였습니다.

수출지원팀은 환경부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내에 신설되는 수출지원팀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업체를 발굴하고 해외 홍보와 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주요한 해외협력사업인 <한·중국 및 한·동남아 국제공동연구사업>은 수출지원팀에서 전담하게 되고 국제 협력 기반조성사업과 해외전시 및 학술회의 등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한 환경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중소환경기술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외 환경시장의 조사와 정보공유, 수출지원 컨설팅 및 해외시장의 홍보와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동남아 국제공동연구사업과 관련한 첫 업무는 베트남과의 국제공동사업 MOU체결이며, 지난 8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환경보호청과 <한·베 환경협력 공동사업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며 베트남 지역별 환경현황 및 환경기술 수요 조사와 환경정책 마련을 통한 중장기 환경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